

회원사소식

설비건설업계 KOSHA 18001 (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바람

- (주)세보엠이씨, (주)우진아이앤에스, 세일기계설비(주) 인증 받아 -



▲ (주)세보엠이씨는 설비업계 최초로 KOSHA 18001 인증을 획득했다.

설비업계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주)세보엠이씨의 김우영 사장은 “안전관련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정착되고 있으며 3년 단위로 업그레이드 되는 만큼 현실과 맞물린 안전 관리를 할 수 있어 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9일 인증을 획득한 (주)우진아이앤에스의 최한욱 대표이사는 “인증 획득 과정을 통해 안전수행 능력을 한층 향상시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재해를 제로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세일기계설비 김현수 대표도 “위험성을 측정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피해가는 장점이 있다”면서 “안전교육 또한 근로자들이 그동안 피동 상태에서 교육받아 왔으나 이번 인증을 계기로 능동상태로 전환하면서 적극적인 마인드로 바뀐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강조했다.

안전 보건과 기업경영이 접목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KOSHA 18001 인증 획득 바람이 설비건설업계에 불고있다.

설비업계 최초로 (주)세보엠이씨(대표 김중서)가 지난 2월 22일 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5월 9일 (주)우진아이앤에스(대표 홍평우), 5월 21일 세일기계설비(주)(대표 김현수)가 KOSHA 18001(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회원사소식



▲ (주)우진아이앤에스 최한욱 대표(사진 아래 왼쪽에서 세 번째)와 안전관리팀 직원들이 KOSHA 18001 인증을 획득한 후 기념촬영



▲ 세일기계설비(주)김현수 대표(사진 왼쪽)가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KOSHA 18001 인증서를 받고 있다.

수여하는 인증이다.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KOSHA 18001 인증을 받은 일반건설업체의 추천을 통해 1년 동안 교육을 받은 후 인증을 받는다.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들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정착이 확산되면 건설현장의 재해율 하락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설비건설업체들의 KOSHA 18001 인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지난해 일반건설업체로부터 추천 받은 15개 전문건설업체 중 12곳의 인증을 완료하고, 6월부터 하반기 신규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KOSHA 18001이 아직은 도입단계라 파급효과가 적지만 일반건설업체와 전문업체가 함께 인증을 받을 경우 재해 방지를 위한 시너지 효과가 크다”면서 “앞으로 일반건설사들의 협력업체 추천이 더욱 늘어날 것

KOSHA 18001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자율안전보건경영 체제를 구축하여 재해예방에 기여한 업체에 “앞으로 일반건설사들의 협력업체 추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